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00, Vol. 9, 107-130

노인들의 부양에 관한 규범의식이 자녀와의 결속, 갈등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유 희 정

한림정보산업대학 여성교양과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이 지각하는 부양규범이 자녀와의 결속 및 갈등, 그리고 자신의 우울증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었다. 강원도 춘천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1명 이상 둔 60세 이상의 노인 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양규범의식 지각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경제적 자원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또 부양에 관한 규범의식 지각은 자녀들과의 접촉기회 증가, 자녀와의 갈등, 및 우울 증상과 관련이 높았던 반면, 규범의식 지각은 자녀와의 정서 및 질적 관계유대, 그리고 자녀와의 기능적 교환과는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노인들이 노후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양에 대한 규범의식의 변화, 이러한 의식변화를 위한 사회교육, 그리고 노인에 대한 공적 부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Key Words: 규범, 노인부양, 세대간 결속, 우울, 자녀와의 갈등]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201-701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0번지 한림정보산업대학 여성교양과 유희정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e-mail 주소는 nanali@sun.hallym-c.ac.kr입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노인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00년 현재 65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비중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섰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에서도 노인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은 바로 그들이 고수하고 있는 전통적인 노인부양에 관한 가치와 규범이다.

노인부양에 관한 사회적 규범은 노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각 사회는 나름대로 노인의 개념, 자녀의 부모에 대한 책임 및 가족부양에 대한 기대 등 세대간의 관계를 다르게 규정하며, 이러한 규범적 유형을 그 사회 내에서 강조한다 (Akiyama, Antonucci, & Campbell, 1990). 우리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노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하는 것을 자녀의 의무이자 ‘효’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으며, 또 실제로 이러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에 관한 윤리규범은 수세기동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성규탁, 1994).

우리 사회는 특히 지난 반 세기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어오면서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에 있어 세대간의 차이나 갈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기혼자녀들은 아직도 효, 부모부양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등 전통적인 가족규범을 다소 내면화시키고 있지만 (김명자·안선영, 1996; 최정혜, 1998; 한은주·김태현, 1994), 도시의 젊은 세대들은 부모부양의식 등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정혜, 1998). 세대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들도 부양 및 효, 가족주의에 관한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하지만, 최근까지도 여전히 우리 나라 노인들은 효, 부모부양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등 전통적인 가족규범을 내면화시킨 채로 살아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경신, 1997; 성규탁, 1995).

사회계층이나 경제적 자립여부와 상관없이 상당수의 노인들이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어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만 (모선희, 1999; 손승영, 1992), 자녀와의 정신적 결속을 강하게 바라면서

도 부양이나 효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를 수용하는 노인들도 있다 (김정신, 1997).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도시 중산층 노인들은 자유스러움을 원하여 자녀와의 동거를 바라지 않기도 한다 (김자혜, 1992). 또 노후의 경제적 여건도 자녀들에게 의존하기보다도 자신이 책임지거나 연금 등의 형태로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어 (모선희, 1999), 노인들이 노후부양을 자식에게 기대하는 전통적인 규범이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노인부양에 대한 규범의 변화는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지리적 이동의 증가로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자녀와 별거할 수 없는 현실, 노인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부담의 증가,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 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통 규범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에게 신체, 경제, 및 서비스 면에서 제공하고 그들의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고 정성으로 보살핌으로 정서적으로도 부양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들도 부모부양에 대한 규범지각이 전통적일수록 자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 즉 자녀와의 애정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가까워야 하고, 자녀와의 접촉기회가 많아야 하며 자녀와의 도움을 많이 주고받는 등 기능적인 결속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노인들이 자녀에게 전통적인 부양의식과 효를 기대하지만, 자녀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세대간의 갈등과 긴장이 유발된다 (이윤정, 1994; MaloneBeach, DeGeneva, & Otani, 1998). 또 현재 한국노인들은 전통적 가치관 때문에 자식에게 효도를 받으려는 기대가 높은 반면, 자녀들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부모는 소외, 고독,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김상규, 1983; 박재간 외, 1995). 그러므로 노인들이 노인부양에 대한 전통적인 규범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자녀와의 애정, 접촉기회, 도움주고 받기 등의 자녀와의 결속 뿐 아니라 자녀와의 갈등에도 영향을 주고 노인의 우울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인들이 부양에 대한 규범의식을 어떻게 지각하며, 노인들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규범의식의 지각이 어떻게 차이가 나며, 이러한 규범의식에 따라 자녀와의 결속과 갈등 등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며, 더 나아가서 우

유 회 정

울증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드러난 연구결과들은 노인부양에 관한 규범을 재정립하고, 노인과 성인자녀간의 보다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 부양에 관한 규범의식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2) 부양에 관한 규범의식은 자녀와의 친화력, 접촉기회, 기능적 교환 등의 자녀와의 결속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가, 3) 부양에 관한 규범의식은 자녀와의 갈등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가, 4) 부양에 관한 규범의식은 노인의 우울증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5) 부양에 관한 규범의식은 자녀와의 결속, 자녀와의 갈등, 우울증과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론적 배경

부양에 관한 규범

부양에 대한 규범은 노부모를 어떻게 대하며 또 부양에 대한 책임임을 어느 정도 지는가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관계 및 성인자녀의 행동을 규정한다. 노인부양에 대한 규범은 문화권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세대간 독립을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노인들이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존심을 최소화하고 자립심을 최대화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노인들이 가족이나 자녀의 부양을 받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살아가거나 국가나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 노인들은 가능한 한 자녀들과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 살면서 친밀감을 (intimacy at a distance) 유지하고 싶어한다 (Bengtson & Treas, 1987).

이에 비해 우리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식은 부모에게 가계의 계승과 번성 및 노후생활의 책임자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에 관한 윤리규범은 수세기동안 부모자녀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는데 (성규탁, 1994), 공적 부양체계가 제대로 확

립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도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노부모에게 경제 및 심리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양체계이다. 사실상 지난 반 세기동안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가치관의 변화가 초래되었는데, 부양에 대한 규범도 변했다. 특히 노인들 스스로가 그러한 변화를 조금씩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아직도 자녀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의존하려는 전통적인 부양규범의식을 고수하는 노인들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지각하는 부양 규범의 측정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살면서 자주 접촉해야 된다는 접촉에 대한 기대와 경제적으로 지원 받아야 한다는 부양에 대한 기대로 한정시켰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부모부양이나 효, 가족주의 가치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소득, 경제적 자립여부, 자녀와의 동거여부, 단체활동, 건강 등 매우 다양하다. 우선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연령이 더 많은 노인들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우자가 없는 노인,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 자녀들과 함께 사는 노인, 건강이 좋지 않는 노인이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가 더 전통적이었다 (김경신, 1997; 손승영, 1992; 조병은, 1990; 한은주·김태현, 1994).

부양에 관한 규범과 자녀와의 결속

자녀와의 결속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세대간 결속(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이라는 개념적 틀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Bengtson & Robert, 1991; Bengtson & Schrader, 1982). 세대간 결속은 구조적, 접촉적, 애정적, 일치적, 기능적, 규범적 등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권에서도 노부모와 자녀와의 결속을 그 하위영역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초점을 맞추었다 (김태현·김수정, 1996; 원영희, 1995; 조병은, 1990; 최정혜, 1992). 그렇지만 자녀와의 근접성을 기초로 한 구조적 결속이나 부양기대감을 기초로 한 규범적 결속은 노부모의 생활만족이나 심리적 안녕, 자녀와의 갈등과

관련이 없었다 (원영희, 1995; 조병은, 1990; 최정혜, 1992). 역시 세대 간 결속 중 애정, 접촉, 일치, 기능적 결속은 노인의 우울증에 차이를 보였지만, 구조적 결속과 규범적 결속은 노인의 우울증과 관계가 없었다 (김태현·김수정, 1996).

이에 국내의 일부 연구자들은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게 되었다 (예, 조병은, 1990). 특히 그 6개의 하위영역 중에서 구조적 결속과 규범적 결속을 제외한 상태에서 노부모와 자녀간의 결속을 연구하게 이르렀다 (신호식, 1993; 최정혜, 1992, 1994). 반면 6개의 하위영역을 토대로 세대간 결속의 개념을 제기했던 Bengston 등도 나중에 Silverstein과 함께 그 개념적 틀을 약간 수정하여 세대간의 결속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을 친화력(affinity), 기회구조, 및 기능적 교환으로 나누게 되었다 (Silverstein & Bengston, 1997). 여기에서 친화력은 애정과 의견의 일치, 기회구조는 접촉의 빈도와 근거리정도, 기능적 교환은 도움 주고 받기를 의미하는데, 친화력은 초기의 6개 하위영역에서 애정적 및 일치적 결속을 합한 개념, 기회구조는 접촉적 및 구조적 결속을 합한 개념, 그리고 기능적 교환을 기능적 결속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도 세대간의 결속을 친화력, 기회구조, 그리고 기능적 교환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시킨 틀에서 진행되었다 (조명덕, 1999; Silverstein & Bengston, 1997). 그 이유는 부모와 자녀간의 심리·정서적 측면의 유대로서 주관적이고 질적인 측면의 관계를 보이는 애정적 및 일치적 결속을 모두 친화력으로 묶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한편 자녀와의 별거하는 노부모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노인의 거주지가 자녀와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 뿐만 아니라 전화나 방문 등 접촉의 빈도를 포함하여 노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기회구조를 나타내는 것은 자녀와의 유대를 측정하는 지표로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교환은 부모자녀간의 물질적, 정서적, 서비스의 상호원조와 교환을 나타내고 있어 세대간 유대의 하위 영역에 포함시켰다.

부양에 대한 규범이 자녀와의 관계, 특히 자녀와의 결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그 이유는 자녀와의 결속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Bengtson 등이 제기한 세대간 결속의

개념적 틀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Bengtson & Robert, 1991; Bengtson & Schrader, 1982), 또 부양에 대한 규범을 세대간 결속의 한 하위영역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가지는 부양기대감 내지는 규범이 자녀와의 결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힌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규범과 결속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본 연구에서는 노인부양에 관한 규범을 세대간 결속의 하위영역으로 보는 대신에 친화력, 기회구조, 및 기능적 교환 같은 세대간 결속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으로 보았다. 즉 자녀가 부모를 자주 접촉하고 부양해야 한다는 부모들의 기대나 규범이 자녀와의 친화력, 기회구조, 및 기능적 교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부양에 관한 규범과 자녀와의 갈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가족구성원들간에도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에도 가치나 태도 면에서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이 파생된다 (Talbot, 1990; Youn & Song, 1992). 노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세대간의 갈등이 더 커진다 (McCulloch, 1990). 또한 가족구성원들은 서로 가족역할이나 감정까지도 교류하는데, 주로 이 상호성이 무시될 때 갈등이 발생한다. 역시 서구인들에게는 서로의 사생활이나 자유를 구속하는 것도 갈등의 한 이유가 된다 (서병숙, 1991).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을 “노부모가 성인자녀에게서 느끼는 객관적, 주관적인 욕구나 가치관의 차이문제로 자녀와의 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대립 또는 충돌한다고 지각하는 정서적인 대치상태”로 정의했는데, 그 갈등을 재정적 갈등, 정서적 갈등, 및 가치관 갈등의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최정혜, 1992).

한편 부양에 대한 규범이 자녀와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규범적 결속은 노부모의 갈등과 관련이 없었다 (최정혜, 1992). 그러나 도시와 농촌을 비교할 때 도시에서는 규범적 결속이 높은 노인들이 낮은 노인에 비해

유 회 정

자녀와의 갈등이 더 높았던 반면, 농촌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도시의 성인자녀들이 개인주의적 가치관 때문에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최정혜, 1998), 노부모가 부양에 대해 전통적인 기대를 많이 할 경우 자녀와의 갈등이 클 수 있다.

부양에 대한 규범과 우울 증상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화로 인해 신체 및 사회적 상실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저하는 우울 증상을 초래한다 (Gallo, Anthony, & Muthen, 1994). 특히 정년퇴직이나 배우자의 사망, 신체적 질병의 발생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 등이 작용하면서 우울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노년기 우울 증상은 개인차가 있지만, 기력 상실, 흥미 상실, 집중곤란, 식욕감퇴, 불면증, 과다수면, 가치저하,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활동수준 저하, 언어적 표현 감소, 인지능력의 저하 등이다.

한편 노인부양에 대한 규범과 노인의 우울증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녀와의 결속 중 자녀와의 애정과 같은 질적 관계만이 노인의 심리적 우울증에 영향을 줄 뿐 규범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원영희, 1995). 또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노인부양에 대해 전통적인 기대를 할수록 노인의 우울증이 다소 높아지지만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손자와의 관계에서는 전통적인 규범을 가진 노인일수록 우울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양의 책임에 대해 전통적인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수록 실망하고 우울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김수정, 1996).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춘천시에 거주하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은 60세 이상의 남녀노인 304명이었다 (남성 98명, 여성 206명). 그들의 평균연령은 약 72.2세이었으며 ($SD = 5.8$, $Range = 60-90$ 세), 연령분포는 60대가 98명(32.2%), 70대는 165명(54.3%), 그리고 80세 이상은 41명(13.5%)이었다. 또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는데, 무학이 109명(36.7%), 초등학교 중퇴가 55명(18.5%), 초등학교 졸업이 71명(23.9%), 중졸 28명(9.4%), 고졸이 26명(8.8%),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이 8명(2.7%)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주관적인 건강평가에서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46명(15.1%), ‘보통이다’는 응답이 93명(30.6%), 그리고 ‘건강한 편이다’는 응답은 153명(50.3%)이었다.

현재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64명(21.5%)이며, 집세나 이자, 연금 등 재산소득이 있는 노인은 95명(32.1%), 그리고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는 노인은 206명(69.4%)이었다. 근로소득이든 재산소득이든 자신의 소득이 있는 자립형 비율은 48.1%($n = 142$), 그리고 아무 소득도 없는 의존형 비율은 51.9%($n = 153$)이었다. 노인들의 한달 용돈은 10만원 미만이 93명(31.2%), 10-20만원이 93명(31.2%), 20-30만원 56명(18.8%), 30-40만원이 27명(9.1%), 40-50만원이 12명(4.0%), 그리고 50만원 이상이 17명(5.7%)으로 전체의 약 3%가 20만원 미만의 용돈을 쓰고 있었다. 현재 용돈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상당히 부족하다’가 25명(8.4%), ‘다소 부족하다’가 85명(28.6%), ‘적당하다’가 161명(54.2%), 그리고 ‘넉넉하다’는 26명(8.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결혼상태의 비율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132명(44.1%)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167명(55.9%)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자녀 수는 평균 4.60명(아들 2.27명, 딸 2.32명)이었다. 응답자들의 동거형태는 ‘혼자서 산다’가 36명(12.2%), ‘노부부만 산다’는 64명(21.6%), ‘장남 가족과 함께 산다’가 108명(36.5%), ‘장남이 아닌 아들가족과 산다’가 42명(14.2%), ‘딸 가족과 산다’가 12명(4.1%), ‘미혼 자녀와 산다’가 29명(9.8%), 그리고 기타 5명이었다. 이들을 자녀와 동거여부로 분류할 때 동거형이 191명(64.5%) 그리고 별거형이 105명(34.5%)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교회나 절, 노인정, 노인대학, 운동, 취미활동, 친구모임 등 사회활동 참여정도는 ‘거의 불참’의 반응이 74명(25.1%), ‘월 1회 정도’

유 회 정

는 37명(12.5%), ‘월 2-3회 정도’는 36명(12.2%), ‘주 1회 정도’는 64명(21.7%), 그리고 ‘주 2-3회 이상’은 84명(28.5%)이었다.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비롯하여, 노인부양에 대한 규범, 노인과 성인자녀의 결속, 노부모와 자녀의 갈등, 그리고 우울증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피는 문항들은 앞의 조사대상자 특성을 소개하는 내용에 관한 것들이었다. 여기에서 건강에 관한 문항은 또래들과 비교한 자신의 건강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각 특성에 대한 범주는 <표 2>처럼 구분하였다.

노인부양에 대한 규범. 이는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노부모가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이 규범은 ‘결혼한 자녀는 부모와 가까이 살아야 한다’, ‘만약 가까이 살면 자녀는 부모를 적어도 1주일에 1 번 정도는 방문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다’와 같은 4개의 문항으로 측정했는데, 반응형태는 ‘아니다 (= 1)’, ‘그저 그렇다 (= 2)’, ‘그렇다 (=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노인과 성인자녀의 결속척도. 이 척도는 Silverstein과 Bengtson (1996)의 자료를 기초로 제작하였다. 자녀와의 결속은 친화력, 기회구조, 그리고 기능적 교환 등 3개의 하위영역의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77이었다. 친화력은 노인이 자녀와 애정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그리고 가치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느끼는지를 살피는 주관적이고 질적인 측면의 결속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으로는 ‘① 자녀와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가’, ‘② 문제발생 시 자녀와 어느 정도 의논하는가’, ‘③ 개인적 문제를 자녀에게 어느 정도 터놓고 이야기하는가’, ‘④ 자신이 일상생

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녀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⑤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의견은 자녀의 의견과 얼마나 비슷한가' 등이었다. 문항에 대한 응답형태는 ①번은 5점('1 = 매우 멀다'부터 '5 = 매우 가깝다'까지), 그리고 ②번에서 ⑤번까지는 4점('1 = 전혀 하지 않는다'부터 '4 = 매우 자주 한다/비슷하다'까지)이었다. 친화력에 대한 총점의 범위는 5-2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화력이 높음을 뜻한다.

기회구조는 '자녀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있는가'의 구조적 근접성과 '지난 한해 동안 자녀를 얼마나 자주 보았는가' 및 '자녀와 얼마나 전화통화를 자주 했는가'의 접촉빈도로 측정하였다. 구조적 근접성의 반응들은 '해외이주 = 1', '자동차로 4시간 이상 = 2', '자동차로 3-4시간 정도 = 3', '자동차로 1-2시간 정도 = 4', '자동차로 1시간 미만 = 5', 그리고 '자녀와 동거 = 6'으로 측정했으며, 접촉빈도는 '전혀 없다 = 1', '1년에 1번 이상 = 2', '1개월에 1번 이상 = 3', '1주일에 1번 이상 = 4', '매일 = 5'로 측정하였다. 기회구조의 총점 범위는 3-1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 접촉의 기회가 많음을 의미한다.

기능적 교환은 세대간 상호원조가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를 말하는데, 노인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과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내용을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노인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는 집안일, 금전적 도움, 문제에 대한 조언, 손자 돌봄, 손자에게 선물이나 용돈의 5가지 영역으로 '거의 없다 = 1', '가끔 = 2', 그리고 '자주 = 3'으로 측정했으며,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아플 때, 집안일, 생활비, 용돈이나 선물, 여행 등 5가지 영역으로 역시 '거의 없다 = 1', '가끔 = 2', 그리고 '자주 = 3'으로 측정했다. 기능적 교환에 대한 총점은 10-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 교환이 잘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자녀와의 갈등척도. 노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은 재정적 갈등, 정서적 갈등, 가치관 갈등의 3영역으로 구성한 최정혜(199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갈등척도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91이었다. 재정적 갈등은 용돈부족, 노후생활대책 걱정, 생활비문제, 독립할 능력, 재산문제 등에 관한 5문항, 정서적 갈등은

유 회 정

무시당함, 서운함, 섭섭함, 소외됨, 무관심 등에 관한 5문항, 그리고 가치관 갈등은 자녀의 생활태도, 자녀와의 사고방식의 차이, 의견의 차이, 자녀의 생활방식에 대한 불만 등을 묻는 5문항이었으며,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형태는 '아니다 = 1', '그런 편이다 = 2', '그렇다 = 3'으로 되어 있었다. 이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큰 편임을 뜻한다.

우울증. 우울증은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Radloff, 1977). 구체적으로는 지난 1주일 동안 말수가 적었는가, 외롭다고 느꼈는가, 슬프다고 느꼈는가, 식욕이 없었는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가 등 12개 영역에 대한 응답을 '전혀 없었다 = 1', '1-2번 정도 = 2', '3-4번 정도 = 3', '5번 이상 = 4'로 한 것이다. 점수의 범위는 12-4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 증상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90이었다.

조사절차

조사는 1999년 12월에서 2000년 3월 사이에 연구자가 미리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자가 질문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기재하는 형식의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연구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숙지시킨 대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주로 노인정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를 비롯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는 모두 319명으로부터 수집되었으나 부적절한 응답을 했던 사례를 제외시킨 304명의 자료들만이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결 과

부양에 대한 규범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우선 노인들은 부양에 관한 규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노인 부양에 관한 규범의식과 자녀와의 결속 및 갈등

아보았다 (<표 1> 참조).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저 그렇다’ 또는 ‘그렇다’ 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노인들의 부양에 대한 규범 지각이 중립적이거나 전통적임을 의미한다. 또 노인들의 규범지각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연령이 높은 노인들이, 학력이 낮은 노인들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이, 용돈이 적은 노인들이,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노인들이,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는 노인들에 비하여 자녀가 부모와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 뵙고 경제적으로 부모를 도우며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규범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김경신, 1997; 성규탁, 1995; 손승영, 1992; 조병은, 1990; 한은주·김태현, 1994).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부양규범의 지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여러 가지 변인들 중에서 오직 용돈 액수 ($\beta = -.198, p < .01$), 경제적 자립여부 ($\beta = -.154, p < .01$), 연령 ($\beta = .141, p < .05$)의 세 변인만이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인들의 규범의식은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경제적 자원에 의해 크게 좌우

<표 1> 부양에 대한 규범의식의 빈도 [n (%)]

문항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결혼한 자녀는 부모 가까이 살아야 한다	49 (16.1)	152 (50.0)	91 (29.9)
만약 자녀가 가까이 살면 자녀는 부모를 적어도 일주일에 1번 정도는 방문해야 한다	33 (10.9)	103 (33.9)	157 (51.6)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37 (12.2)	149 (49.0)	105 (34.5)
자녀는 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다	51 (16.8)	107 (35.2)	134 (44.1)

의 규범의식은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경제적 자원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즉 용돈을 많이 쓸 수 있고 자신의 소득이 있는 경제력이 있는 노인일수록 부양규범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에서 탈피하고 있었다. 또 연령도 노인의 규범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 의존하려는 규범의식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도가 낮을수록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전통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박재간·임춘식(1983)의 결과와 일치한다.

부양에 대한 규범지각과 자녀와의 결속, 갈등, 및 우울증

부양에 대한 규범의식의 고저에 따라 자녀와의 결속, 갈등, 및 우울증이 다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규범의식을 낮게 지각한 집단과 높게 지각한 집단간에 자녀와의 결속 중 친화력이나 기능적 교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단지 기회구조에서만 차이가 났다 ($F = 12.94, p < .001$). 즉 자녀에 대해 보다 전통적인 기대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녀와 더 가까이 살고 자녀와 더 자주 접촉함으로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더 빈번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녀와 더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도움을 더 많이 주고받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규범적 결속과 애정, 일치, 접촉, 구조, 기능적 결속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던 조병은(1990)의 결과와 다르다.

또 규범의식을 낮게 지각한 집단과 높게 지각한 집단간에 자녀와의 갈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재정적 갈등과 정서적 갈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통적 규범의식을 지닌 집단일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으므로 재정적인 면에서 자녀와 갈등을 느끼며,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 등 정서적 갈등을 더 크게 느낀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의 노인들에서는 규범적 결속이 높은 집단일 경우 자녀와의 갈등을 더 많이 느낀다는 최정혜(1992)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규범을 낮게 지각한 집단은 높게 지각한 집단과 우울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자

노인 부양에 관한 규범의식과 자녀와의 결속 및 갈등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양에 대한 규범

	<i>M</i> (<i>SD</i>)	<i>F</i>
성 별	남 8.73 (2.03)	3.67
	여 9.21 (1.87)	
경제적 자립	의존 9.51 (1.98)	15.83***
	독립 8.63 (1.75)	
연 령	60대 8.68 _a (1.97)	5.07**
	70대 9.12 _{ab} (1.90)	
	80대 9.83 _b (1.74)	
학 력	무 학 9.58 _a (1.99)	4.78**
	국 졸 8.95 _{ab} (1.91)	
	중 졸 8.53 _b (1.58)	
	고졸이상 8.38 _b (1.80)	
용돈 (원)	10만 이하 9.45 _{ab} (2.00)	3.80*
	10만-20만 9.25 _a (1.82)	
	20만-30만 8.62 _{ab} (1.71)	
	30만 이상 8.55 _b (2.08)	
배 우 자	유 8.76 (1.80)	5.34*
	무 9.29 (2.00)	
자녀와 동거	동거 9.25 (1.84)	5.21*
	별거 8.70 (2.07)	
건 강	나쁘다 9.25 (1.76)	< 1
	보통이다 9.05 (1.86)	
	좋다 9.04 (2.03)	
사회활동	불참 9.38 (2.05)	1.16
	월 1회 9.21 (1.63)	
	월 2-3회 9.21 (1.62)	
	주 1회 8.86 (1.62)	
	주 2-3회 9.04 (2.02)	

Note. Means with subscripts differ ($p < .05$) on the basis of Tukey's post-hoc comparison tests.

* $p < .05$ ** $p < .01$ *** $p < .001$

유 회 정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부양 규범에 미치는 영향력

변인	b	β
용돈의 액수	-.271	-.198**
경제적 자립여부	-.601	-.154**
연령	.047	.141*
$R^2=0.99$		$F=9.532^{***}$

* $p < .05$ ** $p < .01$

<표 4> 규범의식에 따른 자녀와의 결속, 갈등, 노인의 우울증

		규범이 낮은 집단	규범이 높은 집단	F
결속	전체	46.95	48.24	2.33
	친화력	14.84	14.82	<1
	기회구조	11.21	12.31	12.94***
	기능적교환	21.03	21.20	<1
갈등	전체	21.94	23.75	4.79*
	재정적 갈등	6.73	7.42	5.37*
	정서적 갈등	7.64	8.46	5.85*
	가치관 갈등	7.54	7.81	<1
우울증		21.09..	23.05	5.42*

* $p < .05$ *** $p < .001$

녀에게 전통적인 기대를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증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김태현·김수정(1996)의 결과와 다르다.

마지막으로 규범지각이 결속, 갈등, 및 우울증 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선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구했다 (<표 5> 참조). <표 5>를 보면, 규범지각은 자녀와의 결속을 나타내는 하위영

노인 부양에 관한 규범의식과 자녀와의 결속 및 갈등

역 중 기회구조 및 기능적 교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친화력과의 상관관계는 무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규범적 결속이 애정, 일치, 구조, 접촉, 기능적 결속과 .59에서 .77사이의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던 조병은(1990)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조병은의 연구가 1988년에 실시된 것이므로 현 조사와 12년 동안의 시간차가 있으며, 이로 인해 부양에 대한 규범의식이 약화되어 자녀와의 결속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되었는가는 추후 분석해볼 가치가 있다. 한편 친화력, 기회구조, 및 기능적 교환 등 3변인간의 상관계수는 .20에서 .32로 비교적 높으나 역시 조병은(1990)의 결과보다는 상관관계가 낮다.

또한 규범은 자녀와의 갈등이나 우울증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친화력, 기회구조, 기능적 교환의 증가는 자녀와의 갈등 및 우울증과 부적 상관을 이루고 있지만, 규범의식은 자녀와의 갈등 및 우울증과 정적인 상관을 이루고 있다. 한편 자녀와의 갈등과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은 친화력과 기능적 교환이며, 노인의 우울증은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친화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표 5> 규범과 결속, 갈등, 우울증간의 단순상관계수

변 인	1	2	3	4	5	6
1 규 범	-					
2 친 화 력	.09	-				
3 기 회 구 조	.19*	.30**	-			
4 기능적 교환	.15*	.32**	.20**	-		
5 자녀와의 갈등	.11	-.31**	-.07	-.24**	-	
6 우 울 증	.09	-.13*	-.03	.01	.41**	

* $p < .05$ ** $p < .01$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이 지각하는 부양에 관한 규범의식이 자녀와의 결속과 갈등, 그리고 우울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었다.

특히 연구의 출발은 부양에 관한 규범의식을 자녀와의 결속의 한 하위 영역으로 간주했던 기존의 연구들(김태현·김수정, 1996; 원영희, 1995; 조병은, 1990; 최정혜, 1992)과 달리 하나의 독립된 변인으로 보고 이루어졌으며, 더 나아가서 그 규범지각의 분석은 노인들의 우울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아래 시도되었다. 그 이유는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는 한국사회에서 세대간의 가치와 규범의 차이가 너무 커서 부양에 대한 규범의식을 강하게 가질 경우 자녀와 강한 결속관계를 맺기보다는 오히려 자녀와의 갈등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우울증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결속개념을 Silverstein과 Bengtson(1997)에 의거해 친화력, 기회구조, 기능적 교환 등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노인들의 부양규범 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노인들의 부양에 관한 규범 지각은 중립적이거나 다소 전통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의식에 대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자립할수록 근대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김경신, 1997; 성규탁, 1995; 손승영, 1992; 조병은, 1990; 한은주·김태현, 1994)과 거의 일치한다. 회귀분석에 의하면, 특히 용돈과 경제적 자립여부, 그리고 연령이 규범지각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노인들의 규범의식은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경제적 자원에 의해 그리고 연령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부양에 대한 규범의식을 높게 지각한 집단은 낮게 지각한 집단에 비하여 자녀와 더 가까이 살고, 방문이나 전화 등의 접촉을 더 많이 하는 등 자녀와의 결속 중 기회구조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자녀와의 친화력이나 기능적 교환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또 두 집단간에는 자녀와의 갈등에서, 특히 재정적 갈등과 정서적 갈등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규범의식을 높게 지각한 집단이 자녀와의 갈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노인들의 경우 규범적 결속이 자녀와의 갈등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던 반면 도시 노인들의 경우 규범적 결속이 강한 노인일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크다는

최정혜(1992)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양규범의식을 높게 지각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증이 더 심하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김태현·김수정(1996)과 일치하지 않는다.

결과 편에서는 기술하지 않았지만, 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양에 대한 규범 지각이 기회구조나 친화력, 기능적 교환과 같은 자녀와의 결속에 영향을 주고, 이를 매개로 갈등에 영향을 주고, 또 결국 우울증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상태로 경로분석을 실시해보았다. 경로분석의 결과, 규범지각은 자녀와의 접촉의 기회구조를 증가시켰지만 ($\beta = .22, p < .01$), 친화력이나 기능적 교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규범 지각은 자녀와의 결속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beta = .18, p < .01$). 한편 규범 지각은 우울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지만, 갈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었고 ($\beta = .182, p < .01$) 그리고 갈등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었다 ($\beta = .43, p < .001$). 이는 규범지각이 갈등을 매개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규범이 노인의 우울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원영희(1995)의 결과와 다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규범 지각과 자녀와의 친화력, 기회구조, 기능적 교환과 같은 자녀와의 결속변인과 가지는 상관관계는 조병은(1990)의 결과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다. 또한 친화력, 기회구조, 및 기능적 교환의 증가는 자녀와의 갈등 및 우울증과 부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지만, 규범의식은 자녀와의 갈등 및 우울증과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는 규범의식을 Bengtson 등(Bengtson & Schrader, 1982; Bengtson & Robert, 1991)이 제시한 자녀와의 결속의 하위영역으로 보기보다는 독립된 변인으로 분리해서 보아야한다는 가정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와 가정 내에서 노부모의 역할이나 지위의 약화로도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선희, 1994). 이러한 관계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보완적인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노인들이 가지는 부양에 관한 규범의식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자녀들과의 접촉기회를 증가시키지만, 자녀

유 회 정

와의 정서적·질적인 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자녀와 질적으로 높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갈등이나 우울증을 경험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양을 토대로 한 자녀들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그 기본적인 이유는 자녀들의 부양의식이 변하고 있고, 또 자녀들이 부양에 대한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학업이나 직장으로 인한 자녀와 별거가 불가피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나 맞벌이여성의 증가, 세대간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노인 부양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며 (민무숙, 1995), 노인을 신체적으로 서비스 면에서 핵가족이 부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모선희, 1999; 양옥남, 1997; 한은주·김태현, 1994).

그렇다면 어떻게 노인들이 지각하는 부양에 대한 규범의식을 바꾸어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등장한다. 노인들에 대한 의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 제도적으로는 가족들이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적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노인들이 부양에 대해 규범의식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노후 부양에 대한 자원을 스스로 가지지 못하거나 공적인 보장이 전혀 없을 경우 노인에게는 자녀들이 유일한 자원이다. 따라서 노인연금, 노인의료보장, 노인병원, 양로원 등 노인의 복지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고 공적 부양이 가능해질 때 자원이 없는 노인들도 자녀가 부양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겪는 좌절과 갈등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것이며, 이는 곧 노인들의 심리적 건강을 토대로 한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신 (1997). 부양 및 효에 관한 노인의 가치관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6, 51-66.
- 김명자·안선영 (1996) 신세대부부와 중년기부부의 효도관 비교 분석.

- 대한가정학회지, 34 (6), 113-125.
- 김상규 (1983).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아산사회복지재단.
- 김자혜 (1992). 노부부독립가구의 형성과 부부관계. In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pp. 293-323).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김태현 · 김수정 (1996). 노인이 지각한 세대간 결속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 (1), 110-129.
- 모선희. 1999 . 노인과 가족. In 김익기 외, *한국노인의 삶 : 진단과 전망* (pp. 83-122).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 민무숙. 1995. 노모와 성인딸/며느리간의 상호원조유형이 부양부담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 (1), 74-90.
- 박재간 · 임춘식 (1982). *노인학교, 노인교실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노인문제연구소.
- 박재간 외 (1995).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출판.
- 서병숙 (1991).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 성규탁 (1994).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척도와 차원. *한국노년학*, 14 (1), 50-68.
- 성규탁 (1995).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들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15 (1), 1-14.
- 손승영 (1992). 노부부의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 In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pp. 255-291).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신효식 (1993). *노부모-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간의 인과모형탐색*.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옥남. 1997. 노인과 부양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7, 177-197.
- 원영희 (1995). 동 · 별거 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 (2), 97-116.
- 이윤정 (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덕 (1999). 노인과 거주. In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노인과 한국*

- 사회 (pp. 71-107).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조병은 (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5-124.
- 최정혜 (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정혜 (1994).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노부모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4 (2), 25-36.
- 최정혜 (1998). 기혼자녀의 효 의식, 가족주의 및 부모 부양의식. *한국노년학*, 18 (2), 47-63.
- 한은주 · 김태현 (1994).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 만족도와 부양 부담도. *한국노년학*, 14, 95-116.
- Akiyama, H., Antonucci, T., & Campbell, R. (1990). Exchange and reciprocity among two generations of Japanese and American women. In J. Sokolovski (Ed.), *The cultural context of aging* (pp. 127-138). New York: Bergin & Garvey.
- Bengtson, V., & Robert, E. (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 example of forma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856-870.
- Bengtson, V., & Schrader, S. (1982). Parent-Child Relations. In D. Mangan & W.Peterson (Eds),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Vol. 2).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ngtson, V., & Treas, J. (1987). Family in later years. In M. Sussman & S.Steinmetzs (Eds.), *Handbook on Marriage and the Family* (pp. 614-648). New York: Plenum.
- Gallo, J., Anthony, J., & Muthen, B. (1994). Age Difference in the Symptoms of Depression. *Journal of Gerontology*, 49, 251-264.
- McCulloch, B. (1990). The Relationship of intergenerational reciprocity of aid to the morale of older parents: Equity and exchange theory comparison.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 Sciences*, 45, P150-P155.
- MaloneBeach, E., DeGeneva, M., & Otani, H. (1998). Conflict, well-being, and depression: Young adults in intergenerational caregiving and noncaregiving families. *한국노년학연구*, 7, 5-16.
-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Silverstein, M., & Bengtson, V. (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429-460.
- Talbott, M. (1990). The Negative Sid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widows and their adult children: The Mother's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0, 595-603.
- Youn, G., & Song, D. (1992). Aging Koreans' perceived conflicts in relationships with their offsprings as a function of age, gender, cohabitation status, and marital statu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2, 299-305.

**Elderly People's Perception of the Caregiving Norms
and Its Relations with th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Conflict, and Depression**

Hi Jung Yoo

Hallym College of Information and Industry

Department of Liberal Arts of Women

Chuncheon, Korea 201-701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elderly people perceived the caregiving norms that adult children should care for their old parents, and to analyze its relations with th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conflict, and with depression. The participants were 304 community-dwellers who were over 60 years old and had at least one child. The major finding was that the elderly people's perception of the caregiving norms were influenced primarily by the economic resources that the elderly have. In addition, the elderly parents who persisted the traditional norms on caregivings tend to have more opportunities to contact with their adult children, to have more conflict with the children, and to show higher degree of the depressive symptom.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mak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people higher with the social education.

(논문접수일: 2000년 8월 24일)

(수정논문접수일: 2000년 10월 10일)

(논문게재승인일: 2000년 10월 26일)